

꿈과 도전 속에 피어난 멋진 인생

박준엽 지음



말은샘

회고록을 내면서 2

1부 | '가난'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

1	'소죽치마을'에서 '구석마을'로	12
2	고향의 사계(四季)	14
	1) 봄	14
	2) 여름	16
	3) 가을	18
	4) 겨울	20
3	'초등학교' 최종 학력	23
4	물표(物標)와 밀가루	26
5	오른손 집게손가락	28
6	외할아버지의 과수원	30
7	신문 배달과 아이스끼끼	32
8	야간 중학교 졸업하기	34
9	인생의 목표와 죽마고우	38

1	해군 하사관에 지원하다	42
2	훈련과 교육	45
3	학력보다 나은 것	49
4	첫 번째 발령: DE-73 충남함 서무사	51
	1) 함정 근무의 추억	51
	2) 선진 행정 발전에서 해군의 역할	54
5	성장의 밑거름: 인사참모실 계획과에 근무하다	55
6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	58
	1) 마른하늘에 날벼락	58
	2)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61
7	만남과 결혼	63
8	섬마을 선생님	70
9	해삼의 추억	72
10	행정학교 교관이 되다	73
	1) 장교의 꿈	73
	2) 수치마을	75
	3) 오염된 승어	77
11	강원함 행정장으로 수행한 간첩선 격침 사건	79
	1) 120m, 300명, 40~50일	79
	2) 1983년 8월 13일 새벽	81
12	찐 계란과 과일	83
13	상사로 진급하고 1전단 행정관으로 발령 나다	85
	1) 서울에서 강원도 동해로	85
	2) 후배들을 위한 교육에 솔선하다	87

14 시와 산문	89
1) 함박눈의 슬픈 눈물	89
2) 불교와의 만남	92
3) 동해에서 뵈 어머니	93
4) 산과 바다	95
15 “네가 필요하니까 ”	96
1) 2함대 인사관으로 발령 나다	96
2) 기득권과 인사 개혁	99
3) 아름다운 섬들의 추억	101
16 ‘월사’로 진급하다:	
해군본부사 인사행정과 행정관으로	103
17 1등이 되다!	105
1) 준사관 시험에서	105
2) 준사관 교육에서	107
18 두 번째 동해로, 다시 해군본부 ‘인사관’으로	110
19 군 입대 30년 뒷이야기	113
20 감찰감실 검열관으로서	117
21 장남의 결혼과 마지막 보직	121
22 명예로운 전역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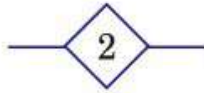
1장 사회단체에서의 활동

- | | | |
|---|------------------------|-----|
| 1 | 사회 복지와 심리 상담 | 127 |
| 2 | 〈계룡시 일자리 안내 센터〉 | 131 |
| 3 | 차남의 결혼과 ‘시민 대상’ 수상 | 135 |
| | 1) 가문의 영광 | 135 |
| | 2) 시민의 ‘손발’과 ‘디딤돌’이 되어 | 143 |

2장 시의회에서의 활동

- | | | |
|---|---|-----|
| 1 | 시의원에 출마한 이유 | 147 |
| 2 |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다 | 152 |
| | 1) 호사다마(好事多魔) | 152 |
| | 2) 의장 취임사 겸 개원사 | 155 |
| | 3) 전반기 의장 활동을 돌아봄 | 158 |
| | 4) 전국 의정봉사대상 수상 | 164 |
| 3 | 계룡대 3군 본부와의 교량 역할 | 169 |
| | 1)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 169 |
| | 2) 소통과 협력의 실례 | 172 |
| | 3) “배’가 됩니까?” | 175 |
| | 4)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 구축 | 178 |
| 4 | 입법 활동 | 189 |
| | 1)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0 |
| | 2)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95 |
| | 3)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0 |
| | 4)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03 |

5	계룡경찰서 신설	205
	1) 의회에서의 진통	205
	2)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209
6	계룡시의 랜드마크 '계룡문'	211
	1) "도시의 대문을 만들자"	211
	2) 10억짜리 공사	214
7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함	217
8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로	220
9	외부로 향하는 메시지	226
	1) 인터뷰를 통하여-"정치는 시소다"	226
	2) 기고문을 통하여-"시민 행복을 향해 가는 여정"	231
	3) 성명서를 통하여-"위험한 발상"	237



고향의 사계(四季)

1) 봄

집 마당에 서면

하늘에 스크린처럼 펼쳐진

모악산(母岳山) 800m 정상을 마시며

바람을 벗 삼아 호연지기를 길렀다

좌우로 둘러싼 동산은 나의 놀이터요

집 앞에 흐르는 개울물 소리

그 속에 사는 송사리는 장난감이요

능수버들 버들피리는

흥겨울 때 내가 찾는 악기였다

개나리와 진달래에서 아카시아 꽃향기까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의 오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석마을에서

가진 것은 거의 없었고

가지지 않은 것은 너무 많았지만

씩씩하고 활발하게 자라 난 것이

내가 가졌던 최고의 자산이었다

태산보다 높다는
오뉴월 보릿고개가 오면
풀을 베어 만든 '풀대죽'을 먹었다
소금으로 간을 한 새까만 보리밥
조밥, 감자밥, 고구마밥, 무밥
반 쌀밥 정도라도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수제비와 국수는
쌀보다 훨씬 자주 먹던
내가 아는 주식(主食)이었다

6남매인 우리 형제들은
아침에 구슬처럼 뽀뽀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저녁에는 다시 삼각형 안에 모여
내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을 기다렸다
봄날의 하루는 그렇게
또 그렇게 지나갔다

2) 여름

여름에는 입을 것이 없었다
아니, 입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까?
반바지 하나만 걸치고
동무들과 수라뿔(농수로)에 가서
한바탕 미역을 감고 나면
송사리와 개구리를 잡아서
맛나게 구워 먹었다
긴 장마에
강한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던
굵고 누런 미꾸라지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비를 맞으며 주워 담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침저녁으로 깔(풀)을 베는 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나에게 지워진 임무였다
한 바지락(지게 한 짐)씩 베어
소에게 먹이를 주어야만
아침을 먹을 수 있었고

학교에도 갈 수 있었다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던
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였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낫을 들면
어른들이 기겁을 하겠지만
어릴 적부터 이력이 난 풀베기
지금도 풀을 베는 데는 자신이 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다 모이면
모깃불을 피우고 명석을 깔았다
하루 종일 묵혀 둔 그날의 이야기들
오순도순 피어나는 정겨운 이야기꽃
집 앞에 흐르는 개울물처럼
흐르는 아이들의 말~ 말~ 말~
여름의 긴 하루는 그렇게
또 그렇게 지나갔다

3) 가을

지금은

단백질의 보고(寶庫)로 각광받지만

그 시절의 메뚜기는

가을에 먹는 빈자(貧者)의 음식이었다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 논에서

양식을 훔쳐 먹는 메뚜기를

한 주머니 잡아서 구워 먹었다

집 주변으로 감나무도 많았다

단감, 뽕족감, 수수감, 네모감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감감하다

가을은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

텅 빈 뒤효가 쌀로 가득 채워지고

가난한 이의 시름 많은 얼굴 주름도

잠시 동안은 사라지게 한다

가을은 거지의 배도 기쁘게 하는 계절

먹을 것이 많은 가을이 나도 좋았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

가까운 곳은

마을사람들이 먼저 다 해 갔고

나는 멀리 10리를 걸어가서
청솔가지와 고자배기 등
무거운 땀감을 지게에 지고
다시 10리를 걸어왔다
마을 뒷산에 떨어진 솔잎을
갈퀴로 조금씩 긁어모아
겨울을 준비하기도 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임무를 더해 주었고
해 저무는 저녁연기와 함께
가을의 하루는 그렇게
또 그렇게 지나갔다

새벽에 나가시면
저녁 늦은 시간
깜깜할 때 들어오시던 부모님
날품을 파시기도 하고
고구마 순이나 깻잎을 따다가
집에서 수십 개씩 다발로 묶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아이들도 옹기종기 모여
부모님을 도와드렸다

4) 겨울

겨울에는 춥긴 하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그만이었다
כות물을 흘리며 소나무를 깎아 다듬고
철사를 달아매어 신발을 삼고
깡깡 언 손을 호호 불며
썰매를 들고 논가와 냇가로 달려갔다
타다가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모닥불을 피워 옷을 말렸다
말리다가 옷에 불꽃이 튀어
엄마한테 회초리도 맞아 보았다
못치기, 구슬치기, 팻대기(딱지치기)
땅따먹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철없는 아이는 겨울이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는
나무를 깎아 만든 칼로
전쟁놀이를 많이 했다
사방이 산이라 묘가 많았다

묘 들을 진지 삼아 칼싸움을 해서
상대편의 묘에 먼저 올라가는
일명 '묘 따먹기' 놀이였다
승부 근성이 강했던 나는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다

겨울의 밤이 오면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헤지고 구멍 난 옷과 양말을
수선하느라 바쁘셨다
아버지는 새끼를 꼬아
방석과 삼태기를 만드셨다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고구마, 무를 깎아 먹으며
심심한 배를 달래곤 했다

한겨울 아침이 되면
우물물을 길어 세수를 했다
동그란 쇠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짹짹 들어붙는 추위에
요강의 노란 오줌이 얼기도 했다

아버지는 머슴처럼 일만 하셨다
(외가에서 준 논 2마지기가
우리 집 재산의 전부였다)
쟁기로 논밭을 갈거나
막일, 모내기, 벼 베기, 품삯일 등
닥치는 대로 일만 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겨울에도 설 틈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사전(辭典)에는
겨울 ‘농한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방이나 마루에 앉으시면
짚으로 덕석이나 명석, 삼태기를 짜면서
저녁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셨다
철필(鐵筆)로 망막에 새겨 넣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면서 자랐다
두 분이 매일 일을 다니셨으므로
소와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동생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일은
둘째인 나의 몫이 되었다
날이 짧아 더 바빴던 겨울
겨울의 하루는 또 그렇게 지나갔다

‘초등학교’ 최종 학력

내가 다녔던 문정초등학교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때는 애향단(愛鄉團)이 있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종’에 모여 함께 줄을 지어 등교를 했다. 모종은 동네사람들이 모여 쉬는 쉼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을사람들은 일터에 나가기 전이나 눈, 바람, 비를 피해야 할 때 모종에 들리곤 했다. 또 모종에 모여 장기나 바둑을 두기도 했는데, 그때는 마을 어귀마다 모종이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향단장으로 선발되어 맨 앞에서 마을 기를 들고 동네 학생들을 이끌었다. 가끔은 옆 동네 아이들과 패싸움하는 일도 있었다.

그 시절은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반공방첩 사상이 매우 강했다. 애향단은 국가에서 장려한 것으로, 각 동네마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애향단이, 예를 들면 <구석마을 애향단> 하는 식으로 있었다. 아마도 등학교 때의 안전 관리나 마을 단위의 단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가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뒤에는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당시는 부잣집 아이들만 책가방이 있었고 대부분은 책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싸 오는 학생들도 반마다 20% 정도는 되었다. 다행히 6.25 전쟁 직후라, 도시락을 못 싸 온 아이들도 미국에서 원조한 옥수수 빵을 먹을 수 있었다. 또 옥수수 가루를 우유에 타서 먹는 것도 있었다. 아직 철이 없던 나는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싸 주시는 보리밥(보리+고구마+쌀 조금)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갖고 다니지 않았다.

나는 체구가 작았지만 깡다구가 있었고 행동이 민첩하여 우리 동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사진. 맨 왼쪽이 형이고, 맨 오른쪽이 나다. 보이는 집이 구석마을에서 우리가 살던 집이다. 형 옆으로 보이는 둥글고 커다란 광주리를 병아리 덮개로 많이 사용했다.

네 학생들은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있었다. 공부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지만, 학교 성적이 전교에서 중상위권이었다. 부반장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한다.

5학년 때는 축구선수로 뽑혀 축구를 시작했다. 훈련이 고되어 지쳐 쓰러진 적도 있었으며, 전국 초등학교 축구 대항전에 나갈 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6학년이 되면서 축구부 코치가 나를 따로 부르더니 “너는 키가 작으니까 (축구보다)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며 축구부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교실에서 맨 앞줄이나 둘째 줄에 앉을 정도로 키가 작은 편이었다.

여담이지만, 1960년대였던 그때도 방문 학습지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 짝이 꽤 부자였는데, 학교에 매일 학습지를 갖고 왔다. 방문 교사가 지도하는 그런 학습지였다. 짝한테 내가 설명도 해 주고 문제를 같이 풀기도 했다.

“네가 필요하니까”

1) 2함대 인사관으로 발령나다

동해에서 2년을 보낼 즈음, 인사 상담차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다. 차기 보직지를 묻기에 “해군본부 아무 부서라도 보내 주면 가겠다”고 대답했다.

발령 1주일 전에 인천 월미도에 있는 2함대 인사과장님(행정 준위 고칠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분은 내가 해군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다.

통화 내용인즉슨, 해군본부로 가지 말고 2함대로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육군은 1989년도에 계룡대로 이사했고, 공군과 해군은 앞으로 계룡대로 이사 가는 일을 논하고 있던 시기였다. 서울(해군본부)로 가면 계룡대로 또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인천으로 이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불러 주시면 2함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 인사 명령이 났다. 그리고 나서 부임 이틀 전에 인사과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2함대 인사관으로 보직 명령을 낼 테니, 일자에 맞게 도착하여 전입 신고를 하라”

상사로 진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런 중책은 오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원사나 상사 선배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이 맡아야 되니까, 나는 제일 힘든 자리로 보내 달라고 졸라 댔다. 그랬더니 “네가 필요하니까 나와 함께 인사의 중책을 이끌어 가자”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함대 인사과에는 인사계와 계획계가 있었다. 계장은 보통 원사가 맡아서 했지만, 당시 2함대의 계획관(계획계장)을 고철만 과장님과 동기생인 상사가 하고 있었다. 원사들이 인사과장의 선배이다 보니 사정상 상사인 동기생을 기용하지 않았나 싶었다. 계획관은 나와 상사 진급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 고철만 준위님은 동기생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었는데, 나 역시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상사로 인사관이 됨으로써 고 준위님과 닮은 점이 있었다.

나를 잘 아는 인사과장님이 일부러 나를 선발한 것이 분명했다.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네가 자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야” “나도 꾀발 없는 과장인데, 너도 꾀발 없다고 하면 되나? 같이 열심히 일해 보자”고 하던 말로 미루어 보건대,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겁도 나고 자신감도 없었던 2함대 인사과 인사관 업무가 시작되었다. 나의 임무는 2함대 전체 장병의 해상, 육상 및

각종 기지 근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즉 인사 발령하고 교류하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는 잘해야 본전밖에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자리임이 분명하다.

2) 기득권과 인사 개혁

1990년 3월 인천 월미도에 있는 2함대 사령부 부임 신고를 마치고 연안부두에 있는 예하 부대에 신고 및 인사차 내려갔는데 고참 부사관들이 뒤에서 쑥덕거렸다. ‘경험도 적은 젊은 사람이 인사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원칙과 규정에 맞게 인사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2함대 사령관님(안병태 소장)에게 복무 계획을 보고하고, 기존의 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장기 근속한 부사관들이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서 나에게 대한 흠집을 내며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인사관의 일을 수행할 때 예상되는 염려(윗사람들이 널 잡음)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상부에 보고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소신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당시는 한 자리에서 장기 근속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그만큼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인사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이다. 공평하게 자리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나는 안 가! 너나 가라!”라고 하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군의 전력을 좀먹는 불평과 불만이 바로 이런 틈새에서 새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선임 후임에 상관없이 오로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바른 인사를 시행하였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괜히 흔들

어서 잡음을 내느냐?”면서, 내가 뭘 잘못된 것처럼 상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인간관계, 특히 윗선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리 상부에 보고하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1년 만에 잡음을 잠재울 수 있었다.

2함대는 함정과 기지(섬)가 많았다. 그러므로 육상 근무와 선상 근무와 지원 시설(섬 등)에서 근무하는 팀을 서로 교류시키면서 병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교류가 장병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양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의 나를 두고 한 말 같다. 초임 때라 겁도 없이 사명감만 갖고 일했기 때문에 인사를 평정할 수 있었던 건데, 인사과장님이 나를 선발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튼 위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으며, 나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3) 아름다운 섬들의 추억

인사관 시절에 외해(外海, 인천 해역에서 벗어난 바다. 연평도, 어청도 등)와 내해(內海, 인천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바다. 팔미도 등), 그리고 수많은 전담 감시소(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인사 및 병력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이 기회에 돈을



다른 부대에는 다 있는데, 2함대 사령부 내에는 군사 우체국이 없었다. 나는 부임하고서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령관에게 보고하면서 "군사 우체국이 없어 장병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다. 그 뒤 서울 체신부 우편국장을 만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마침내 1993년 2월 2함대 2전단 내 연안부두에 설치한 우체국 안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사진은 당시 인천 시장으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는 장면이다.

주고도 가 볼 수 없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보았던 멋진 섬들이 눈에 선하여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백령도의 '콩돌 해안'과 백령도에서 바라본 '인당수'(印塘水)가 생각난다.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는 황해도 육지와 백령도 사이의 바다를 가리킨다고 한다.

1991년의 어느 여름날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팔미도를 방문했다. 팔미도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작은 섬이다. 인천으로 들어가려면 팔미도를 거쳐야 했다.

팔미도는 무인도로 군사 기지가 있었으며, 전쟁의 흔적인 총탄 자국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나라 제1호 등대가 있는 섬의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날 밤에는 낚시로 잡은 우럭과 소라 파티가 있었다. 밤에 햇불을 들고 나가 소라를 한 가마니 잡아서 구워 먹고, 싱싱한 우럭 생선회를 만들어 먹던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원사’로 진급하다 -해군본부사 인사행정과 행정관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 있고 알찬 2함대 근무를 마칠 즈음에 해군본부 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해군본부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이때는 해군본부가 서울 대방동에서 계룡대로 이전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기였다.

나는 두 아들이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해군본부에 터전을 잡기로 했다. 1993년 7월 해군본부 법무감실로 부임하였고, 그해 12월에 인천 남동구에서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 계룡대 군 관사로 이사했다.

법무감실에서 행정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사시에 합격하거나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군 판사, 군 검사, 검찰 수사관 등 법조인들에 대한 관리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법무감실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원사로 진급이 되었는데, 이때도 최저 기수의 빠른 진급이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분들 가운데 지금 변호사나 부장 판사, 부장 검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법무감실에서 3년 남짓 지날 무렵에 갑자기 해군본부사 인사행정과 행정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발령에는 해군본부 본부사령(허성준 대령)의 추천이 있었었다. 해군본부사 인사행정과 행정관은 해군본부 내의 모든 행사와 근무, 체육, 복지, 교육,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1등이 되다!

1) 준사관 시험에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던 1997년 초, 해군본부에서 행정 준사관 1명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났다. 준사관 시험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었다. 더구나 나는 아직 진급 시기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과 인사관이었던 고칠만 준위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셨다.

“시험을 한 번 봐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경험 삼아 보고 내후년에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라”

행정 준사관 시험 과목은 행정 전문 과목(군 인사법, 병역법, 원호법, 군법, 해군 규정 등)과 영어(중학교 3학년 수준) 그리고 ‘군인 자격’ 등 3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탈락했기 때문에 응시하는 선배(원사)들이 많지가 않았다.

해군 전 부대에서 응시한 13명 가운데 기수별로는 내가 13번째로

꼴찌였다. 경험 삼아 보는 거라고 했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교관 출신이라는 체면도 있고, 또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지라 ‘창피하니까 낙제는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하고 3개월 동안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이번이 일어났다. 응시한 선배들 가운데 60%가 낙제를 하는 바람에 시험 성적을 포함한 전산(全算, 전체를 계산한) 종합 서열에서 내가 1등이 된 것이다. 준사관 시험을 3~5회씩 보고서야 합격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준사관을 달지 못하는 행정 선후배가 부지기수였다. 행정 준사관은 1~3년 차에 한두 명만 선발했다. 준사관은 부사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다.

그렇게나 어렵다는 행정 준사관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자, 내 기분은 하늘을 날았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다.

사실 나는 기수별 서열로는 꼴찌였다. 시험 성적을 뺀 종합 전산 서열로는 9번째였다. 나보다 앞에 있던 8명 중 5명이 시험에서 60점 미만으로 낙제를 했다. 남은 3명은 나보다 시험을 못 봤는데, 4~5점 차이가 났다. 시험 점수로는 내가 2등이었다. 1등을 한 사람은 종합 전산 서열에서 10번째로 (나는 9번째) 나와는 점수 차이가 별로 없었다. 결국 지휘관 추천 점수-이 점수는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들어간다-가 최종 등수를 갈라놓았다. 나는 1등급을 받고, 시험에서 1등인 사람은 2등급을 받았던 것이다. 등급끼리는 2점 차이가 났다.

2) 준사관 교육에서

1997년 7월의 한여름, 해군 준사관 교육대 38기로 발령받아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인원은 해군과 해병에서 각 직별(특기)로 한두 명씩 선발되어 총 62명이었다. 입교 시 선후배간 기수 서열은 중하 정도(70%)였다.

입교와 동시에 간부 자격과 리더십, 부하 통솔법, 행정 업무 처리 능력, 체력 향상, 사격술과 수영 등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6주간의 강훈련이 이어졌다. 교육 과정은 해군 사관생도들과 똑같았다. 비상소집, 과실 보고, 산악 행군 등이 설 새 없이 이어지면서 지치고 잠이 부족하여 이론학과 교육 시간이 되면 졸고 있는 생도가 거의였다.

나는 군에서의 마지막 교육을 후회 없이 멋있게 받아 보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더하며 요령을 피우지 않고 모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다. 이윽고 교육을 수료하기 3일 전에 생도 부장실에서 호출이 있어 갔다가 다음과 같은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귀관이 금번 교육에서 1등을 하여 사관학교장 우등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축하합니다!”

사실 준사관에 선발되어 임관되는 것만도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전 직별에서 내로라하는 우수한 인재들만 모아 놓은 자리에서 1등을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군 생활 36년 가운데 받은 마지막 교육에서 가장 크고 영예로운 1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진급에서 1등을 했지만 교육에서는 1등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의 1등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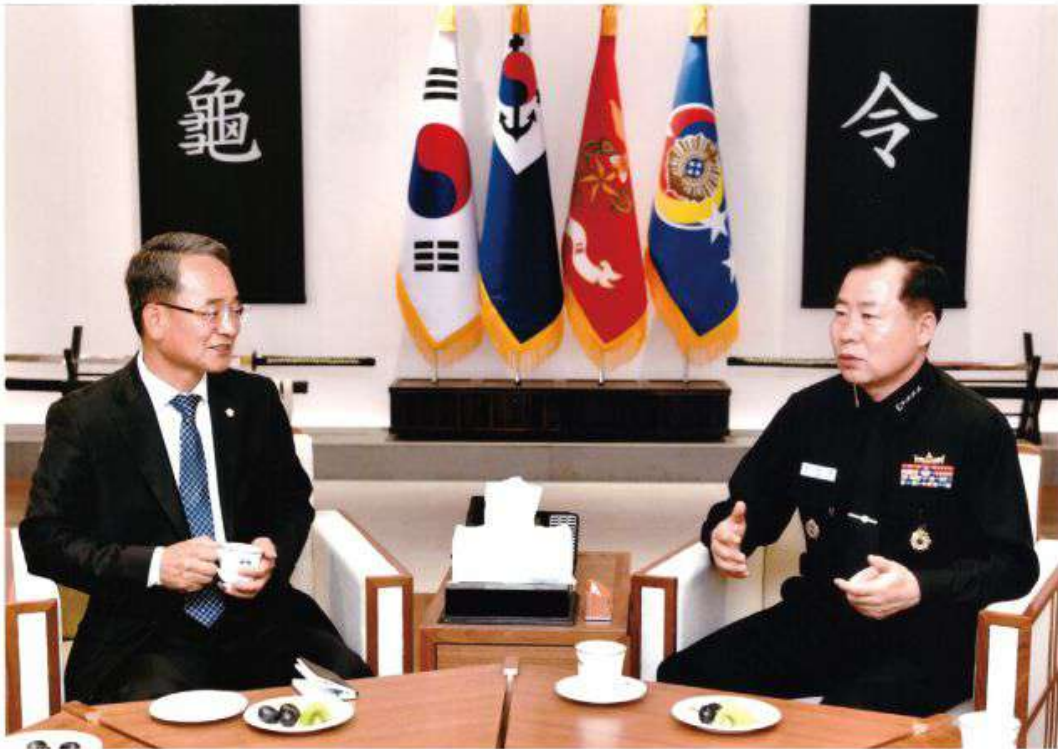
수료식에는 처와 두 아들이 함께 참석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와 동생의 가족, 처가 가족, 동기생 등 많은 분들이 와서 나를 축하해 주었다. 사관학교장(이수용 중장)으로부터 우등상장과 메달과 꽃다발을 받는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낳아 주시고 바르게 키워 주신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렸다.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감격과 환희에 찬 눈물을 흘렸다.

또한 부족한 나에게 시집와서 월세살이를 하는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불평 한 마디 없이 끝까지 남편을 지원하며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 낸 나의 아내,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 온 아내에게 깊이 감사했다.



해군 준사관 학교 제38차 임관식. 메달을 걸어 주시는 분은 해군사관학교장 이수용 중장님입니다.

계룡대 3군 본부와의 교량 역할



지역 현안 문제 협의차 3군 참모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2018.12.3.)

1)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이면서 행정 구역은 논산시 두마면이던 지역이 지난 2003년 9월 19일 계룡시(鷄龍市)로 승격되었다. 애초에 계룡시는 인구-2020년 12월 기준 42,000여 명이다-라든가 다

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시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의 참모총장들이 있는 계룡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특례시에 해당한다. 계룡시는 우리나라에서 면적(60.70km²)이나 크기가 가장 작은 시인데다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는 국방부 계룡대가 차지하고 있다.

시의 면적이 작으니까 군사 보호 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이 된다 해도 제한적인데, 이런 상황이 계룡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과 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두 집단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반면에 군의 특성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며 단순하다. 일을 할 때도 서로의 이질적인 특성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협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의 존재 때문에 면 단위에서 시로 승격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군의 존재를 시의 발전에 장애물로 여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룡시와 3군 본부 사이의 소통이 절실하다. 막혀 있는 직통 전화부터 뚫어서 필요시에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어야 한

다는 말이다. 내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부지 매각이나 다른 업무에서 계룡대와 협조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정도로 소통이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2) 소통과 협력의 실례

나는 의장이 되자 먼저 ‘막힌 하수구 뚫는 사람’을 자칭해서 뚫는 기계를 들고 계룡대 3군 참모총장님들을 만났다. 내가 의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에서는 <군 병영 체험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이유로 계룡대에서 체험관 부지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참모총장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2가지를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었다.

- 우리 시에서 체험관을 짓지만, 주요 내용은 군과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고 병영 체험을 통해 국가 안보관을 홍보하는 것이다.
- 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혜택 받는 쪽은 대한민국 장병과 국민들이다.

세 분 참모총장님들은 내가 드린 설명을 바로 이해하셨다. 즉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터를 닦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그때 내가 의회 의장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세 분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에 더하여 내가 해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설득력에 힘을 실어 주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226개 시군 자치 단체에서 해군 출신이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내가 처음이었다.

지금도 지역에 사는 선후배님과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내게 해군을 빛내 줘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곤 한다. 나를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병영 체험관’은요...

〈계룡 병영 체험관〉은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 부지 14,000여 m²에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면적 2,999m²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軍문화엑스포기념관, AI·VR 체험관, 실내 병영 체험실 및 숙박형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2023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서 및 그동안 건의·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병영 체험관이 관광객에게 軍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軍 관광 명소로서 국방 수도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해·공 3軍 본부가 관내에 입지한 이점을 활용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안보 교육, 세계 속의 한국군의 위상 홍보 등 병영 체험관을 명실상부한 안보 체험의 산실로

건립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룡일보 2021.06.08.]



〈계룡 병영 체험관〉 조감도

3) “배’가 뭘니까?”

박춘엽 의원 285페이지에 보면, 병영 체험관 첨단 장비 전시 모형 연출이 있지 않습니까? 병영 체험관이 언제 완공되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2022년 10월쯤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박춘엽 의원 운영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2023년도 초에 하려고 합니다.

박춘엽 의원 금방 첨단 장비 모형을 연출한다고 했는데, 육군과 공군은 좀 뭐가 되는데, 해군의 그 “배”라고 써 놓은 것은 마음에 안 드네요. 배가 뭘니까, 배가? 낚싯배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것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무인 항공기, 배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모형을…….

박춘엽 의원 고속정이면 “정”, 함정이면 “함정” 모형이라고 뜻을 박아야지, “배”라고 하면, 낚싯배도 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겠

습니다.

박춘엽 의원 실물 모형 전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전시관이다 보니, 군 상징이기 때문에 실물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의원 물론 병영 체험관이라는 개념이 관광객이 와서 들리는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내에 이런 모형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안대로 막 날아가듯이 모형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볼거리가 될까?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선불리 접근하지 말고, 이게 조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가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또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실외에 설치한다고 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실내에 설치해서 위에 딱 얹어 놓는다! 이런 모습은, 글썩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런 게 추진된다면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는 사람이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49회 계룡시 의회(임시회) 2021.1.20.]

4) 절실히 필요한 '시스템' 구축

이솝 우화 <염소와 외나무다리>를 소개한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냇가에 좁다란 외나무다리가 있었다.
외나무다리 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건너왔다.

마침 그때 맞은편에서도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로 올라섰다.
얼마 가지 않아 두 마리 염소는 외나무 가운데쯤에서 만났다.

"이봐, 길을 비켜라! 다리는 내가 먼저 올라왔다."

"무슨 소리냐? 내가 먼저 올라 왔으니, 네가 비켜라!"

염소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다리 위에 올라섰다고 버텼다.
두 마리 염소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외나무다리는 두 마리 염소가 비켜가기에는 너무 좁았다.
염소들은 서로 먼저 건너가겠다고 으르렁댔다.

어린아이를 둔 한 가족은 이 우화를 읽고 두 염소에게 필요한 미
터를 골라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고른 미터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blog.naver.com/smilingyuni/222099769257>]

- ㄱ. 유연성 -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고집만 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보고 양보할 만하면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
- ㄴ. 존중 - 무턱대고 싸우려 들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
- ㄷ. 협동 - 둘 다 떨어지지 않고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려면 협동해야 한다.

우리 계룡시와 계룡대가 우화에 나오는 두 마리 고집 센 염소 같다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두 집단이 같이 일할 때, 양쪽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가족은 답을 정확히 집어냈던 것이다.

위에 제시된 3가지 미덕인 유연성, 존중 그리고 협동은 우리 시와 관련해서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민과 군이 나타내는 이 3가지 미덕은 계룡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현재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보증하는 새로운 방으로 우리 계룡을 안내하게 될 3개의 열쇠에 해당한다.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나을 것이다. 민과 군은 어느 한쪽이 먼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을 잘 아는 사람이 계룡시와 시민의 유익을 위하여 양쪽을 중재하는 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룡대를 안고 있는 계룡시가 이 장치를 능동적으로

로 마련할 것을 권한다. 만약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중재자의 역할을 맡을 마음이 있다.

앞에 실은 나의 의장 취임 소감에서도 그 점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넷째, 계룡시와 3군 본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계룡시와 3군 본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 토의, 협조 사항, 주요 행사 등에서 일부 소통 부재로 불협화음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문화와 정서를 알고 소통할 시의원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계룡대에서 15년, 계룡 시청에서 6년 10개월을 근무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양쪽의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시와 3군 본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상생 발전하는 데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논문 한 편이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를 소개한다. 이 논문은 내용에서 우리 계룡시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민군 간 대화를 통해 상호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군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에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된 부분도 있다. 이는 평상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군 관련 현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자체에 민군 협력 담당관 제도를 편성하여, 군을 이해하고 군 관련 전문 지식을 구비한 공무원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요시 예비역 간부를 채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군과의 원만한 갈등 해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박광호/지방화 시대의 民軍 갈등과 協力에 관한 연구: 계룡市 승격 사례를 中心으로, 2004년]

달력이 3개



계룡시 의회 의장실에는 여느 곳과 달리 달력이 3개나 걸려 있습니다. 그 달력은 육군, 해군, 공군의 달력입니다. 박춘엽 계

룡시 의회 의장에게 의장실 벽에 3군의 달력을 걸어 놓은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달력의 사진을 보면 군의 기상이 살아 있고, 나라 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어 바른 마음가짐을 되새기곤 합니다”

국방 수도 계룡시에 걸맞게 박춘엽 의장의 군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룡시 의회 관계자는 “3개의 달력 위치를 바꾸어 달 만큼 3군에 대해 편협하지 않은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논산포커스 2019.8.30.]

매일 출·퇴근

계룡시 의회 군 출신 의원들이 매일 공무원과 같이 의회에 출·퇴근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쳐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춘엽 의장(해군 인사 행정 분야 36년 근무)과 허남영 의원(국군 간호사관학교출신), 윤차원 의원(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다.

대다수 시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사업 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은 주로 회기 때에 한다. 하지만 박 의장 등 3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7월 제5대 계룡시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회기 때는 물론 휴회 때도 매일 오전 9시에 의회에 출근하여 오후 6시가 넘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 시정 운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있다.

이들이 매일 출·퇴근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사리 김 모 씨는 "애로 사항이 있어 의회를 찾았는데, 회기가 아닌데도 의원이 자리에 있어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계룡시 의회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적극적으로 긁어 주는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엽 의장은 "찾아온 민원인들을 접견하여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출·퇴근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 2019.01.20.]
